

## 흔들리는 브로일러 산업

일전 대구에서 아파트가 기울어져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와우아파트처럼 넘어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또 여의도의 고층아파트 하나가 흔들흔들한다고 한다. 신경 예민한 사람은 잠이 잘 올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아파트보다는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준다. 정말 기초공사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다. 아파트 내부가 아무리 호화스러워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흔들리다가 때가 오면 쓰러지고 만다.

브로일러 산업이 지난해 10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어지러울 정도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빈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곧 쓰러진다는 사람도 있고,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밟쳐야 된다느니 하는 부분

적 처방도 나오고 있다.

우선 쓰려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수 배 비축을 해야된다는 의견과, 쓰려지게 내버려 두고 쓰려질 것이 쓰려진 후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쓰려진 후에 다시 지어도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하고 모래위에 지으면 또 쓰려질 것은 뻔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되풀이 해왔다. 브로일러산업은 이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간 부분을 때우거나 페인트 칠로는 흔들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계열화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개중에는 혼들리는 아파트에 살아야 스릴이 있고 사는 맛이 있다고 하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되지 못 한다. 이제는 혼들리지 않는 아파트에서 살 때도 되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기초공사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있다.

이 땅에 브로일러의 꽂은 언제 뭘것인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 계균혈청검사의 중요성

며칠 전 양계업자 몇사람과, 이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사료회사의 영업사원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결론은 양계산업은 질병파의 투쟁이라는데 모아졌다.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크고 양축가들이 가장 골치아픈 것이 질병문제라는 말이다. 게다가 양계구모가 대형화하고 집단화·밀집화 함으로써 질병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도 커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질병발생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병성이 복잡화하여 실험실 진단이 없이는 정확한 진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부터 양계협회가 가축위생 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계균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ILT가 없을 때 질병으로 인한 양계업계의 손실이 연간 700억 원이라고 추산 발표한 적이 있다. 그후 ILT 발생



과 배합사료가격의 인상등을 감안하면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금년도 양계산물소비 계획이 계란 약 50억개, 닭고기 126천 M/T으로 계란 개당 55원, 닭고기 kg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양계산업 외형은 약 5,270억원으로 질병으로 약 19%의 생산비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된다.

양계산물의 외형액이라는 것이 일개 재벌회사 외형액의  $\frac{1}{10}$  도 안되는데 대담하지 못하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한다면 질병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40만 양계농가 외에도 사료, 동물약품, 기계기구, 도계 및 유통, 소비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국토를 보전한다

는 뜻에서 국가 중요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축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86년부터 축산물 수입이 개방될 경우를 생각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중에도 질병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육가들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캣슬인데도 호흡기질병으로 알고 치료한다든가, 뉴캣슬과 ILT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 아무런 증상이 없이 산란율만 떨어져 당황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걸리는 경우 등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나 사료회사에서 현재 협회에서 하고 있는 계군 혈청검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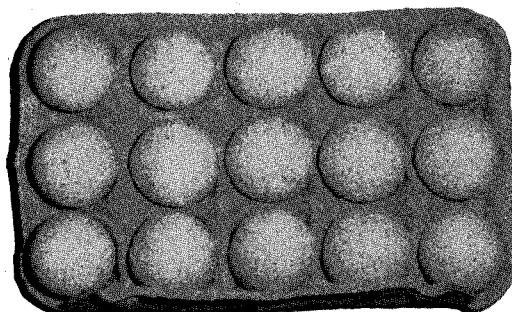
5대회사 연간 매출액(단위 : 억 원)

회사	계열기업	83년매출	GNP 대비 (%)	84년 매출목표
현대	23	70,000	12	90,000
삼성	23	62,000	10.6	80,000
럭키금성	24	60,000	10.29	72,000
대우	25	50,000	8.58	65,000
선경	14	48,000	8.23	54,000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양축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나의 경험과 인식이 절대적이라는 고집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과학적으로, 제도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종란, 왕란, 오리알용 종이난좌 - 알집이 큰 난좌가 새로 나왔습니다



질병 예방  
파란 방지  
신선도 유지  
부화율 향상 등  
경제성이 높다

- 10개들이 풀라스틱 난좌
- 메추리난좌 생산개시

## 제일성형공업사

공장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536-3(한림바위 앞)

연락처 : ☎ (성남) 3-6239 공장 : (은현우체국, 450번)